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동교회로 모입니다.

유치부 성경학교가 13일과 14일 교회에서 열립니다.

여선교회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판매합니다. 참기름은 8,000원 들기름은 7,000원입니다.

김정행(필명:김호연) 교우의 소설 「망원동 브라더스」와 박충 교우의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이 출간되었습니다.

초복이 지났습니다. 지나친 보양식, 잦은 보양식은 삼가십시오.

암 7:7~17 / 시 82 골 1:1~14 / 눅 10:25~37
--

눅8:1-3
--------

식 당 봉 사 : 백혜숙 백성래 정현숙 박경원 허정호 박미연 조순덕 김정우 다음 주 식당봉사 : 안정숙 진정숙 이해령 이용숙 최희영 신영화 유명남 김정민 오늘설거지봉사 : 변재민 이소혜 강세기 이소애 황현성 다음 주 설거지 : 5남선교회 6여선교회 새 교 우 : 이동희(3남) 최상훈(청년부) 배요셉(청년부) 떡 대 접 : 이준하 전사랑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주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본래의 자리를 찾게 해주십시오. 힘이 없어 늘어서 있던 손과 발에 기운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주님, 계속되는 장마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침수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논밭의 농작물을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마음을 줄이는 농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파란 하늘과 맑은 햇살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순배 강찬양 김명순 이교영 김문주 김성한 조영순 김영순 김용길  
 최영혜 김재환 김진선 김정길 최숙화 김철수 유영남 김훈동 유경순  
 류준모 심호선 문복순 박시내 박옥순 방극숙 백묘현 양재성 임미심  
 오미경 우순덕 원용일 최현선 원주신 이광섭 이국노 김민화 이우엘  
 이재문 이정은 이한림 김명희 임주빈 최현옥 정두리 정연희 정현모  
 조경자 조문규 진정숙 조순덕 최다미 최은미 최철수 곽권희 한상경  
 한훈식 권채영

### 감사헌금

김갑동 김영숙 김정행 김필순 박미연 박옥순 배미숙 송임희 여연화  
 오진훈 노순옥 이병수 이유일 김미희 이인태 이현순 임 영 정경례  
 임미심 전 응 권정희 정선희 조대상 조은상 김소연 조한열 최미자  
 최숙화 김정길 최양순 무명10

### 생일감사헌금

구명자

### 녹색꿈헌금

김만균 노성희 김용진 김인석 이선화 문복순 박호규 강영님 장원호  
 박성희 무명6

	장혜숙 노순옥 김재흥 장영숙 정경례 박홍재 권미숙 이순정 이형숙 안홍숙 정영선 박혜경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장영숙	백혜숙 박성희 최경미 신영신 진정숙 곽권희 박미영 김금순 윤수진 오현정 서정순 조항미 오자영 이근식 곽상준 김세진	장혜숙 교회 이소순 이명희 안정숙 백묘현 박미영 이순정 윤미경 안홍숙 김경혜 박혜경	심
--	--	--	---	---

## 조약돌

수천 년을  
갈고 닦아도

조약돌은 아직도  
물속에 있다

아직도  
조약돌은  
스스로가 부족해서

물속에서  
몸을 씻고 있다  
스스로를 닦고 있다

- 이무일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거둬나가 하셨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빚문서를 지워버리셨습니다. 세상의 그릇된 권세에 더 이상 헛된 충성을 바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주님께 헌신하며 사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자유와 새로운 삶을 허락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헛되고 거짓된 힘에 굴복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진리요 생명이요 자유이며 사랑이신 주님께만 마음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신앙의 요체 / 김기석 목사 기도 : 안길상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신진식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김인걸 장로	김태환 선생 김현주 집사

7	영접위원	김인걸 윤성종 송동준 김윤정 김현주 김진경
	헌금위원	방문성 유경순

믿음으로 읽는 글

## 내 어둠을 들추어 준 다윗을 생각하며

... 성서를 읽다보면,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인물 중의 하나가 다윗이다. 이스라엘의 시들을 모아 놓은 시편의 시들 중에 많은 시는 다윗이 지었다고 하며, 그의 삶은 신앙의 모델로 자주 언급된다. 그의 삶은 여전히 찬란하며 동시에 어둡고, '갑'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씩씩하다. 그래서 그는 신비하다.

그런데 약간 빼딱한 눈으로 성서를 읽어보면, 그는 보잘 것 없는 가문에서 태어나 자신의 왕조를 이룬, 기가 막히게 정치적인 사람이다. ...다윗은 성서라는 텍스트도 결국 힘 있는 자, 역사의 승자를 위해 쓴 것이라는 현대 해석적 비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여성주의 비평이나 이념 비평에서 비난의 표적이 되는 것도 다윗이다.

특히 다윗과 여성의 관계를 보면, 그는 솔직히 질이 좋은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잘 알다시피, 그는 충실한 그의 부하 우리야의 아내 밋세바와 정을 통하고, 임신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온갖 일을 꾸미다 결국 우리야를 죽이게 한다. 물론 성서는 밋세바가 무엇을 느꼈고 생각했는지, 그녀가 다윗을 좋아하기는 했는지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밋세바는 끝까지 정치력을 행사하며,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도록 다윗에게 입김을 가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극적인 것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라고 하겠다. 성서는 철저히 승자인 다윗의 편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간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가 야훼의 눈 밖에 났다. 싸움 전에 하느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아 조바심 끝에 그만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출전한 것이 그 이유이다. 다른 하나는 싸움에서 얻은 전리품을 모두 불살라야 하는데, 그것이 아까워서 좀 남겨둔 아주 인간적인 이유다. 그로부터 모든 상황은 사울에게 불리하게만 돌아간다. 결국 하느님의 눈 밖에 난 자의 처절한 최후만 남는다.

그런데 무엇보다 사울을 미치게 만드는 것은 질투다. 질투는 가진 것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이다. 아들의 친구인 보잘것없는 궁정악사였던 다윗, 그러나 그가 자신보다도 더 위대한 전사라는 말에 그만 심기가 편하지 않다. 더구나 그의 아들 요나탄과 다윗의 우정은 더욱 사울을 괴롭힌다. 그의 아들마저도, 혹시 다윗에게 자리를

빼앗길세라 노심초사하는 자기와 한 편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다윗과 한 편이 되어 그를 싸고돈다. 그런데 이 우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합법적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어 있는 왕자 요나탄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 우정은 오직 요나탄이 다윗에게 바치는 우정이다. ...

내게 성서가 매력적인 텍스트인 것은 다윗을 매끄럽고 완벽하게 그리고 있으면서도 곳곳에서 모순적인 모습과 그의 어두운 면도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울이 하느님의 눈 밖에 났듯이 다윗도 하느님의 눈 밖에 나는 일을 했는데, 병적 조사가 그 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그는 사울보다 훨씬 프로답게 회개한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나는 솔직히 이렇게 공식처럼 회개를 잘 하는 사람이 좀 두렵다. 너무 매끄럽고 드라마틱해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백성들의 사랑을 받으려 하지 말고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다윗은 내가 보기에 마키아벨리보다도 한 수 위여서 마치 신앙의 언어로 자신을 무장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느님이 예쁘게 보시고 내 편이 되셨다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이스라엘이 그를 따라야 하는 정당성을 피력하는 것 같다. 물론 성서 작가의 붓을 빌어.

그런데 내가 철저히 사울 중심으로 성서를 읽다가도 한 부분, 정말 다윗이란 인간에게 매료되는 부분은, 밋세바와의 불륜으로 나온 아기가 죽어갈 때, 울고 단식하며 기도하다가, 아기가 죽고 나자 훌훌 털고 식사를 하는 일화다. 수인사대천명(修人事待天命)이랄까? 최선을 다해 회심하고 빌어보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참 쿨하게 받아들인다.

방학을 맞은 첫 주말의 아침, 오랜만에 한가롭게 식탁에 앉아 다윗의 삶을 생각한다. 그는 승자인가? 아니면 운명에 휘말려 정신없이 달려가야 했던 외로운 인간이었을까? 그래도 신 앞에 벌거벗을 수 있었다면, 그는 용감한 사람이란 생각이 든다.

나중에 한 생을 살고, 것처럼 나도 하나도 숨김없이 하느님과 다 셈을 치른 상태라면, 나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다윗의 다 드러난 치사하고 비열한 인격을 보면서 나는 내 안에 잘 접어 숨겨둔 나의 어두움을 발견한다. 그렇다면 다윗이란 캐릭터는 내게 오늘 이 시간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 앞에 다 드러내고 서는 연습을 하라고 나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내 삶과 화해하는 방법이고, 나와 화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 박정은의 <신학 오디세이아> 중에서